“내년 ‘K-명상’ 프로그램 공개 목표”

‘진우 스님’ 인터뷰 2면에서 계속



진우 스님은 현재 종단차원에서 개발 중인 선명상 프로그램을 내년이면 대중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도심에 건립할 명상센터도 현재 검토 중인 부지만 확정된다면 내년 착공이 예상된다.

Q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비롯해 다양한 종책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명상의 대중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마음이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한다면, 삶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평안함을 맛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란한 마음과 흔들리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곧바로 청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쉬면 긴장이 풀려서 행동이 여유로워지고 몸 또한 건강해집니다.

작년 말부터 종단 안팎의 명상 전문가들과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였고, 꾸준히 회의를 거듭하면서 명상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선명상 프로그램 초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고, 지금은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각종 명상 프로그램을 분류하여, 명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상담과 안내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단에서 개발하는 선명상 프로그램은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상센터 건립은 몇 군데 대상 부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명상센터 건립 기본설계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만약 개운사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 더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만들 것입니다. 내년에 착공할 경우, 3년 정도면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선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명상센터 건립이 끝나면, 우리 종단은 명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완비하게 됩니다. 이 거점을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템플스테이 시설이나 시민선방 등을 활용하여 명상 붐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명상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최신 트렌드와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문화재보호법 개정 등 불교계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법률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종단이 정부와의 소통, 입법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도 전통사찰의 가치 재평가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전통사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통사찰은 한국불교의 수행도량임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복합유산입니다. 한국불교 17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가꿔온 전통사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어 전승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성보 문화유산은 국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그 자체로 역사 · 문화적, 생태적, 관광 · 휴양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의 종교성과 역사성, 문화성, 생태 경관 보전을 위해서는 사찰의 면 단위 보존이 중요합니다. 전통문화의 진정성을 보존해 나가는 일입니다.

또한 전통사찰은 항상 자연과 함께 공존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장성 백양사라고 부르지 않고 백암산 백양사라고 하며, 사찰의 입구를 산문이라고 할 정도로 산과 사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하기에 근대 어려운 시절에도 사찰은 산감이라는 제도를 두고 사찰림을 보호해왔습니다. 산림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사찰림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존해온 사찰림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산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치유를 위해 사찰과 사찰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치유와 건강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와 국민이 전통사찰을 종교와 문화재, 국립공원과 숲 등을 별개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사찰이 가진 전통문화의 상징적 가치와 생태 및 사회적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적극 홍보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1년간 펼친 다양한 사업과 활동 가운데 개인적으로 스님께 가장 뜻깊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 종부세 폐지, 아미타불교요양병원 개원, 국가법령 개정 등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갈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사찰 방문객이 늘어나고, 관람료를 내던 과거에 비해 조심성이 줄어 사찰 관리에 어려움은 조금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모두 중요한 성과들이지만 천년을 세우다 사업은 향후 미래 불교를 열고 불교 중흥을 위한 토대를 닦는 불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불교의 존재 이유인 중생의 고통의 덜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과 명상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외 재난재해 등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불교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지원하고자 했던 부분들과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인 세계잼버리대회에 불교계가 적극 지원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민주연구원장 예방에서 종단차원의 ‘통합연구소’를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은 내용인데,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중앙종무기관 내에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 불교사회연구소 등 정책 연구 부서들이 있으나 주로 교재 개발이나 특정 분야 정책 연구에 머물러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년 전부터 통합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회와 호흡하는 미래 불교정책과 시대에 맞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종책연구소로 통합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종단개혁 30년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개편 의지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복안이 궁금합니다.

종단개혁 30주년을 앞두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종단 운영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여 시대 상황에 부응하고 불교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조직으로 재점검하려 합니다.

총무부, 기획실 등 현 조직 체계로는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맞는 대정부 정책 대응, 뉴미디어 홍보 등을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스님, 사찰 등 종단의 주요 자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각 부서에 나눠져 있어 통합적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출가자 감소에 따른 출가 전담부서가 없는 현실도 기존 조직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흥을 향한 전법 및 대사회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평가를 통해 3원 체제에 대한 재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앙종무기관이 종단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시대와 함께하는 효율적 조직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종회, 교구본사 등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Q 매일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불자들 사이에서도 108배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가수행자로서 108배를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08가지 번뇌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서원으로 하고, 더불어 우리 불교가 잘 중흥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죠. 개인적으로는 원력을 다지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108배를 함께하신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Q 총무원장으로서 늘 마음에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계신지요.

저는 총무원장이 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출가수행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좋고 나쁜 두 가지 극단적인 분별, 감정을 없애는 게 수행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